



- 1 경기도 용인 GS연수원에서 24개 저축은행 45명의 신입 행원 연수가 열렸다.
- 2 금융 지식 이론과 실무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연수생들.
- 3 조별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으로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 4 신입 행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 5 집중력 단결력 순발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도미노 게임.
- 6 호프데이를 즐기고 있는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신입 행원들.



2017 하반기 신입 행원 연수

우리는 새내기 저축은행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주관한 2017년 하반기 신입 행원 연수가 경기도 용인 GS연수원에서 8월 21일~9월 1일 열렸다. 이번 연수에는 24개 저축은행에서 모두 45명의 신입 행원이 참여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대표, 김승모 BNK저축은행 대표가 연수생들과 함께 호프데이를 즐기고 있다.

스무 살 새내기부터 진행맨, 여행 홀릭 'YOLO'족, 인형뽑기의 달인까지 다양한 이력과 개성을 지닌 신입 행원들은 연수 동안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수신 업무 지식, 이미지 메이킹, 팀워크 훈련, 비즈니스 매너 등 이론 및 실무 교육과 금융인이 갖춰야 할 예절 교육을 받았다.

연수 첫날 진행된 특강에서 저축은행중앙회 이순우 회장은 “은행원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직해야 하고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연수에 참여한 45명의 신입 행원들은 11박 12일 동안 전체 교육, 조별 과제 수행 등 빡빡한 일정 중에도 주말에는 볼록 게임과 휴식 시간을 즐기며 동기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8월 26일 오후에는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 김승모 BNK저축은행 대표,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대표가 연수원을 방문해 신입 행원들을 격려하는 ‘호프데이’ 시간을 가졌다. 맥주를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 시간에는 각 저축은행 대표의 건배사와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고 모든 연수생에게 이름이 적힌 명함 보

관함을 선물했다. 모아저축은행 황혁기 사원은 “저축은행은 필연적으로 타 저축은행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번 연수에서 동기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중앙회장과 IBK·BNK·신한저축은행 대표님들과 인적 교류를 경험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IBK저축은행 김현아 사원은 연수 동안 두 번에 걸쳐 방문해 연수생들을 교육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이순우 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저축은행의 든든한 선배님들께서 항상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고 힘이 났다”고 말했다.

연수 마지막 날인 9월 1일에는 폐강식과 연수생들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백저축은행 전혜지 사원은 “연수를 오기 전에는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워 빠르게 일을 해내는 것에 급급했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과 법규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 과정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람저축은행 유한진 사원은 “연수를 통해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시각과 안목을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추억과 친구 동기를 만들어 기쁘다”고 전했다.☺

신입 행원의 미소, 밝은 저축은행을 만들어 갑니다



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

입사해 처음으로 각 사의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받는 신입 행원 연수는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 시간은 인생에서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멋지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입 행원 여러분들 모두가 업계의 빛나는 보석이 되길 바랍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 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 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 번 고요한 저녁이 된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 시인의 시 구절입니다. 일과 공부, 여가 활동 등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건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저축은행업계를 이끌어 갈 큰 재목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은 과거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재무적으로도 건설해지고 있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신입 행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된 체계화된 연수 시스템은 이론부터 실무, 비즈니스 매너와 고객 서비스의 기본까지 꼼꼼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는 행원들의 성장에 큰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열정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행원 여러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라고 임직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면 도전 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정신이 긍정의 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입 행원 여러분의 큰 발전을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김승모 BNK저축은행 대표

저는 지난 30여년간 1금융권에서만 근무하다가 저축은행에 온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 외부에서 봤을때 보다 훨씬 경영전반의 내용이 좋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영역도 확보되어 있고 직원들도 우수하였습니다.

특히 여신부문에서는 기업금융이든, 개인금융이든 저축은행 직원들이 1금융권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영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순우 회장님께서 저희 저축은행 업계를 잘 이끌어 주셔서 저축은행 전체 자산과 수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어 미래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아마 3년후 쯤에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1금융권 보다 저축은행을 먼저 선택하는 날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